

SPORTS ‘상승세’ 광주FC, 서울 잡고 선두권 안착한다

2025년 4월 18일 금요일



프로축구 광주FC가 K리그1 선두권 탈환에 도전한다.

광주는 오는 19일 오후 7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5 9라운드 FC서울과의 원정 경기를 치른다. 현재 광주는 리그 9경기에서 3승 4무 2패(승점 13)로 4위에 자리 잡고 있다. 앞서 있는 리그 1위 대전하나시티즌(승점 17), 2위 김천상무(승점 14), 3위 울산HD(승점 14)와의 격차가 크지 않다. 이번 9라운드 일정을 승리로 장식한다면 충분히 선두권 등극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광주에게 이번 경기가 갖는 의미는 어느 때보다 특별하다. 광주는 서울과의 경기를 치른 후 오는 26일 알 힐랄

선수단 내 분위기도 최상이다. 주중 경주한수

원과의 코리아컵 3라운드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다. 그간 다소 출전 시간이 부족했던 노희동, 진시우, 권성윤, 하승운 등이 선발로 출전해 강한 인상을 남겼다. 교체로 출전한 황재환, 홍용준, 안혁주 등도 언제든지 경기에 나설 수 있는 자원임을 입증했다. 이는 이정호 감독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선수단 내 긍정적인 경쟁 구도가 조성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고민이 많았던 공격진에선 선발 복귀전을 치른 가브리엘이 1골 1도움, 박인혁이 광주 소속 데뷔골에 성공하며 활활 날았다. 리그에서 3골을 넣고 있는 아사나, 헤이스 공격 듀오에 가브리엘, 박인혁까지 득점 행진에 가담한 시점에서 광주를 상대해야 하는 구단은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서울과의 경기는 중원 싸움에서 한방이 갈릴 확률이 높다. 광주는 팀 내 핵심 미드필더 박태준, 이강현이 경주한수원과의 경기에서 체력을 안배했다. 올 시즌 휴식을 취한 박태준, 이강현 조합은 리그 내 어떤 중원과 견줘도 부족함이 없다. 반면 서울은 기성용, 정승원이 부상으로 이탈하며 변수를 맞이했다. 광주는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서울의 중원 조합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대비하고 있다.

광주가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 ‘서울 킬러’ 면모를 재입증하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내일 오후 7시 서울월드컵경기장서 FC서울전

3승 4무 2패 승점 13 리그 4위…울산과 1점차

과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8강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행 비행기에 오른다. 이후 5월 2일 울산과의 맞대결 전까지 리그 경기가 없다. 이정호 감독과 선수단은 반드시 서울을 잡고 좋은 흐름으로 아시아 무대에 임하겠다는 각오다. 다행히 최근 광주에게 서울과의 경기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지난해 리그에서 3번 만나 모두 승리(1라운드 2-0, 16라운드 2-1, 33라운드 3-1)를 거뒀다. 2023년 9월 17일 30라운드 경기에서 1-0으로 이긴 것까지 더한다면 최근 4경기에서 4연승을 챙겼다. 이는 광주가 서울과의 경기에 자신감을 내비치는 이유다.



전남 서예지, U18 아시아육상선수권서 ‘동메달’

여자 멀리뛰기 결선서 5m66 기록 “기록 늘려 1위 중 선수 넘어설 것”

전남 육상 유망주 서예지(광양하이텍고 2년)가 18세 미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값진 동메달을 들어 올렸다.

서예지는 16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담맘에서 열린 대회 여자 멀리뛰기 결선 2차 시기에서 5m66을 뛰어 3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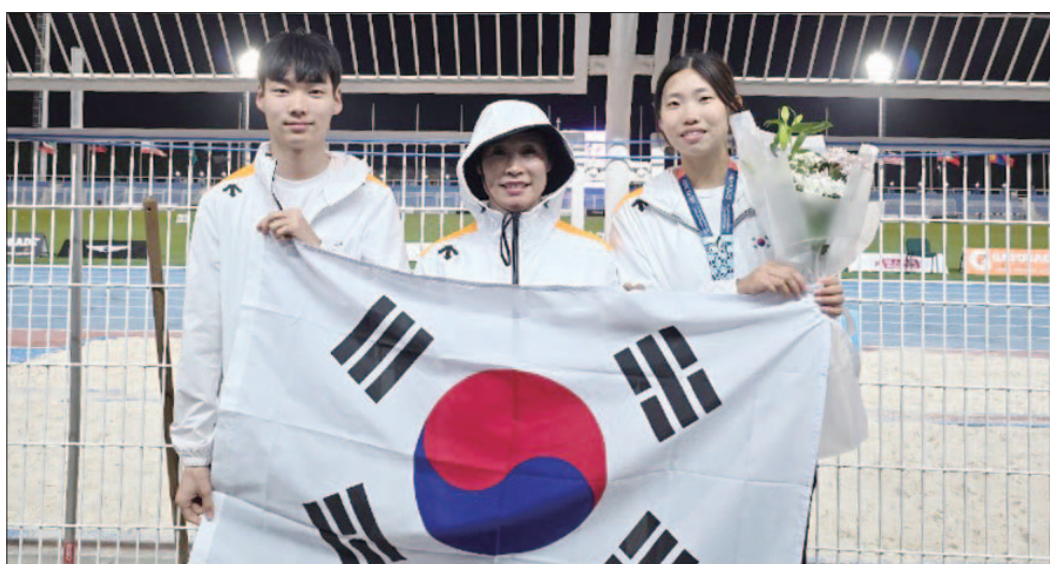
5m66을 뛸 때 바람이 등 뒤에서 초속 3.8m로 불어 서예지의 기록은 ‘비공인 기록’으로 분류됐다. 멀리뛰기에서는 초속 2m를 초과하는 뒷바람이 불면 기록을 공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바람의 세기와 관계없이 1~6차 시기 중 가장 멀리 뛴 기록으로 순위를 정한다.

10명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서예지는 6m26을 뛴 랑모롱(중국), 5m77의 치 엔야 클로이(싱가포르)에 이어 3위에 올랐다.

2017년 광양철성초 3학년 시절 처음 육상을 접한 서예지는 한국 도약 종목의 유망주다.

고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제53회 춘계 전국중고육상경기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육상종별선수권대회, 한국 U18 육상경기대회, 문화체육부장관기대회 등 7개가 넘는 대회에서 정상을 놓치지 않았다. 그 결과 청소년 국가대표로 발탁돼 인도네시아 U18 오픈 선수권대회에 출전하기도 했다.

최상의 컨디션을 이어간 그는 생애 처음으로 참



18세 미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서 동메달을 차지한 광양하이텍고 서예지(오른쪽)가 김유미 광양철성초 지도자(가운데), 광양하이텍고 고준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한 ‘제105회 전국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따냈다. 대회 세단뛰기에서 11m90을 기록, 김나영(인천·11m10)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서예지는 이로써 첫 전국체전 메달을 금빛으로 장식했다.

이어 올해에는 국제대회 멀리뛰기에서 시상대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서예지는 대한육상연맹을 통해 “개인 최고 기록 경신을 목표로 도전했는데 동메달을 획득해 기쁘고 영광스럽다”면서 “차근차근 기록을 늘려 1위를 차지한 랑모롱 선수를 넘어서고 싶다”고 말했다.

장학수 광양하이텍고 코치는 “서예지의 주 종목

은 세단뛰기다. (입상) 예상하지 못한 멀리뛰기에서 메달을 따내서 정말 자랑스롭다”며 “김유미 광양철성초 코치님의 훌륭한 지도 아래 열심히 훈련한 결과인 것 같다. 남은 경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올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남자 100m 결선에서 나선 전채민은 10초 41로, 10초40에 달린 3위 쿠 추크 펴(홍콩)에게 0.01초 차로 밀려 4위를 했다.

이 종목에서는 시미즈 소라토(일본)가 10초38로 우승했고, 다이후미(중국)가 10초39로 2위에 올랐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김효주, LA 챔피언십서 시즌 2승 도전

유해란·윤이나 등 한국 선수 출전

마스터스 토너먼트 기간 선 2025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재개한다.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르다(미국)를 비롯한 주요 선수들은 18일(한국시간)부터 21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엘 카멜레로 컨트리클럽(파 72·6679야드)에서 열리는 LPGA 투어 JM 이글 LA 챔피언십(총상금 375만달러)에서 경쟁을 다시 시작한다.

이번 대회는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세브론 챔피언십을 일주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전초전 성격을 띤다.

아울러 5개 메이저대회와 FM 챔피언십(410만달러), 시즌 최종전인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1100만달러)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상금이 걸려 있어서 세계랭킹 상위권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다. 코르다를 비롯해 세계랭킹 2위 지노 티파곤(태국), 4위 릴리아 부(미국), 5위 해나 그린(호주) 등이 도전장을 냈다.

그런데 이 대회 3년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그는 2023년 2차 연장 끝에 이 대회 우승 트로피를 품었고, 지난해엔 마야 스타르크(스웨덴)를 3타 차로 제치고 2년 연속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다만 올해는 변수가 존재한다.

LA 챔피언십은 그동안 미국 로스앤젤레스 월터 컨트리클럽에서 열렸지만, 최근 보수 공사를 하면서 대회 장소가 엘 카멜레로 컨트리클럽으로 바뀌었다. 이번 대회엔 한국 선수들도 여럿 출전한다. 개막전 우승자인 김아람이 휴식을 택한 가운데



유해란, 김세영, 고진영, 최혜진, 김효주, 윤이나 등 주요 선수들이 총출동한다.

지난 달 포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김효주는 올 시즌 2승, 네 번째 톱10을 겨냥한다.

세계랭킹 9위로 한국 선수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 중인 유해란은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유해란은 올 시즌 출전한 5개 대회에서 모두 20위 내의 성적을 냈다.

최고 성적은 개막전과 혼다 LPGA 타이랜드에서 기록한 공동 14위다.

LPGA 투어 데뷔 시즌에 고전하는 윤이나는 첫 톱10을 노린다. 그는 올 시즌 출전한 4개 대회에서 모두 20위 밖의 저조한 성적을 냈다. 연합뉴스

“기초 종목인 육상 발전에 역할 다할 것”

광주시육상연맹 제4대 회장에 김민주씨 당선

김민주 명주상사 대표(47)가 제4대 광주시육상연맹 회장에 당선됐다.

광주시육상연맹은 17일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김 후보를 당선인으로 공고했다. 연맹 선거 운영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결격 사유 심사를 한 뒤 기존 선거 예정일인 이날 별도 투표 없이 이 후보를 당선인으로 확정했다.

김 후보는 이날 광주시체육회로부터 인준장을 받아 신임 회장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했다.

광주제일고와 목포대학교를 졸업한 김 회장은 명주태양광발전소를 설립했으며 현재 주식회사 명주상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유도 2단의 실력자이며 광주 생활체육 명주파이터스 야구단 구단주로도 활동 중이다.

김 회장은 “발로 찾아 뛰는 회장이 될 것”이라

며 “현장에 가서 선수들과 교감하고 격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젊은 회장인 만큼 현장을 많이 찾아가서 대화할 생각”이라며 “육상이 기초 종목이긴 하지만 비인기 종목이기도 하기에 보여주기가 회장이 아닌 제가 할 수 있는 한 직접 행동하는 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핸드볼, 소프트테니스 등 친구들이 종목별 회장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관심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는 “저도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왔고 체육계에서, 육상 종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회장으로 나서게 됐다”며 “육상은 모든 운동 종목의 기초 종목이고 그만큼 중요도가 높는데 그와는



반대로 관심도는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아쉽다.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잘 찾아 나설 것”고 말했다.

김민주 신임 회장의 임기는 4년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이창호, 시니어 세계바둑 초대 우승

끝내기서 유창혁 제압

‘신산(神算)’이라고 불리는 이창호 9단(사진)이

시니어 세계바둑대회에서 초대 우승을 차지했다. 이창호는 지난 16일 오후 성동구 마장로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회 불리츠자산운용 시니어 세계바둑 오픈 결승에서 유창혁 9단에 304수 만에 흑 2집 반승을 거뒀다.

왕년의 바둑 전설들 대결로 관심을 끈 결승은 대국 내내 치열하게 전개됐다.

초반에는 유창혁이 앞섰지만, 중반 이후 인공지능(AI) 승률 그래프가 요동쳤다.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승부 끝에 이창호가 끝내기에서 확실한 승세를 굳히며 2집 반을 남겼다.



우승 후 이창호는 “유창혁 9단은 항상 어렵게 생각하는 선배라서 열심히 두지고 생각했고, 윤이 따랐던 것 같다”며 “바둑이 잠깐씩 싫증 날 때도 있지만 좋아하는 바둑을 어렸을 때부터 할 수 있어 복을 많이 받은 것 같다. 앞으로도 즐겁게 생각하고 최대한 즐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불리츠자산운용 시니어 세계바둑 오픈은 프로와 아마추어, 국적의 경계를 허문 글로벌 오픈 대회다.

프로는 남자 50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기사에게 출전 자격이 주어졌고, 아마추어는 남자 50세 이상, 여자 19세 이상 참가해 자유를 겨뤘다. 연합뉴스